

 <p>대한민국국회 THE NATIONAL ASSEMBLY OF THE REPUBLIC OF KOREA</p>	<h1>보도자료</h1> <p>(2019. 5. 16 목)</p>	 <p>국회미래연구원 NATIONAL ASSEMBLY FUTURES INSTITUTE</p>
	<p>국회미래연구원 <a href="http://www.nafi.re.kr">http://www.nafi.re.kr</a> (02) 786-2199</p>	

##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 초청 국회 특별 강연회

### -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 -

- 요약 -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5월 15일(수) 국회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를 초청하여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의 특별 강연 이후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르테름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벨기에는 유럽 연합(EU)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주적 수립과정을 논의하였다.

앞으로 국회미래연구원은 유럽의 에너지 전환 정책의 경험을 참고하여 기후 변화에 대응하여 저탄소/친환경에너지로 전환하고 있는 세계적인 추세에 발 맞추어 향후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에너지 정책에 있어서 바람직한 국민 합의의 과정에 대한 논의 및 관련 연구를 지속할 예정이다. <끝>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종호  
(02-2224-9812, [joheo@nafi.re.kr](mailto:joheo@nafi.re.kr))

※ 2019년 5월 17일(금) 조간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국회미래연구원(원장, 朴進)은 5월 15일(수) 국회바른미래당 김동철 의원실, 한국행정학회와 공동으로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를 모시고 “에너지 정책의 민주적 결정 과정”이라는 주제로 특별 강연회를 개최하였다.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는 르테름은 1960년 10월 6일 출생으로 겐트 대학교에서 법학 학사 및 정치학 석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그는 벨기에 서부에 있는 소도시이자 자신의 고향인 이프르 부시장으로 정계에 입문했으며 이후 벨기에 하원의원, 야당 대표, 기독교민주당 당수, 플랑드르 장관, 연방 상원 의원, 부총리, 예산 및 교통부 장관, 외무부 장관을 역임했다. 2007년부터 2011년까지 벨기에 총리를 지냈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파리에 본부를 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사무차장을 지낸 후 현재 스톡홀름에 기반을 둔 민주주의 및 선거 지원을 위한 국제기구(International IDEA)의 사무총장직을 수행하고 있다.

이번 강연회에서는 이브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의 강연 이후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패널 토론이 이어졌다. 르테름의 총리 재임 기간 동안 벨기에는 유럽 연합(EU) 의장국으로서 유럽의 에너지 전환시대의 중심에 있었던 르테름 전 벨기에 총리의 특별 강연을 통해 지속가능한 에너지 전환 정책의 민주적 수립과정을 논의하였다.

## ■ 특별 강연 요약

르테름 전 총리는 “Energy Policy and Democracy”라는 제목으로 특별 강연을 하였다. 에너지는 곧 인간의 진화의 과정이었고 모든 문명과 사회의 필수적 요소임을 전제하였다. 1965년 이후 4배로 증가한 에너지 소비량에 대응하기 위해 지속개발목표(Sustainable Development Goals) 7번에서 “지불가능하고 신뢰할 수 있고 현대적인 에너지에 대한 접근”을 강조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 현재 도전과제인 불충분한 접근성, 불평등, 건강에의 영향, 기후변화, 자연자원의 고갈, 생물다양성 위협, 효율, 안전, 분배, 취약성 증가 등에 대해 설명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재생에너지 대 화석연료의 문제를 거론하였다. 이 문제에 있

어서는 CO<sub>2</sub> 배출의 감소가 중심이 되어야 하고 이를 위해 2030년까지 온실가스를 55% 줄여야 한다는 IPCC의 목표를 언급하였다. 따라서 에너지 문제를 바라보는 관점은 화석연료 대 비화석연료가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스웨덴의 경우, 1980년도에 원전에 대한 반대에서 2019년에는 환경을 위해서 원전을 선택해야 한다는 상반된 주장이 나타난 사례를 소개하였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민주적인 절차는 무엇일까? 먼저 전 총리는 1894년의 “the great horse manure crisis”를 소개하면서 말의 배설물로 인해 생긴 도시의 이동 체계의 문제가 풀리지 않을 것 같았으나 자동차의 양산으로 문제를 해결했듯이 새로운 과학기술의 개발과 발전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음을 전제로 하였다. 이러한 전제 위에 민주적 참여, 포용, 투명성, 책임성, 공동체성, 반응성을 중심으로 하는 민주적 절차뿐만 아니라 입법화에 대한 강한 의지가 필요함을 주장하였다. 이를 위해 세금우대책과 같은 정책 선택지뿐만 아니라 에너지 생산과 소비의 탈원화와 시민들의 정책 결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위한 국민투표, 전문가 자문 과정, 시민운동 등을 제안하였다.

결론적으로 에너지는 개인의 일이자 동시에 집단의 문제이며, 민주적인 원리를 통한 입법화가 필요하며 비화석연료의 생산과 소비를 위한 논의에 집중해야 한다며 강연을 마무리하였다.



이어진 패널 토론시간은 박진 국회미래연구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다. 유럽 내 에너지 전환 경험을 공유해달라는 질문에 르테름 전 총리는 유럽 내 탈원전에 대한 논의는 90년대부터 꾸준히 증가했고 친환경주의 정치인들의 참여로 토론을 거쳐 의회에서 입법을 결정했다고 답하였다. 에너지 생산구조의 변화를 결정하기까지는 점진적이고 장기적인 토론이 필요했으며, 그 과정에서 원전 소유자들과의 합의가 매우 중요했다고 설명하였다.

한국도 최근 원전을 줄이는 추세지만 전기요금은 낮게 유지하고 있는데, 친환경 재생 에너지의 수요를 높이면 전기요금 인상이라는 결과를 초래하는 점에 대한 질문이 제기되었다. 르테름 전 총리는 전력 산업 경쟁도입을 통해 국민이 전력을 절약하도록 하는 방향이 적당하며, 한국은 발전된 ICT 기술을 이용하여 비용과 혜택을 비교할 수 있도록 에너지 정책에 대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제시하였다. 더불어 향후 전력 수요가 증가할 것이므로 원전 외에 재생에너지라는 대체안에 대한 충분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답하였다.

작성자 :  
국회미래연구원 부연구위원 허종호  
(02-2224-9812, [joheo@nafi.re.kr](mailto:joheo@nafi.re.kr))